

李朝五百年史



序

余曩者青柳南冥、大村琴花諸君과朝鮮研究會를興하고、爾來朝鮮研究에必要한書史와興味有한雜書를刊行以來하니라、然而此任에當해야孜々한經營하는者는實로青柳南冥君也、

南冥君이近頃書를寄하여朝鮮近世史著述하려하며、然而其大綱은錄하여余에게示하는지라、思之컨디朝鮮近世史는此를記述함에材料乏하고、此를評論함에興味少하니、然이나此를日韓關係의變遷으로서見하고、又此를東亞國勢의變化로서見하즉前에는壬辰役이有하며、淸軍의侵略이有하고、後에는日淸、日露의事變이有하여、其亞細亞政局上에及한近世의二大事件이되얏도다、余는南冥君과俱히此外交史論에向하

야多大호 研究를 非不索也로다
南冥君은 特히 壬辰役前後의 史論에 就하야 卓絶호 意見을 有
호고 又李朝五百年間의 朋黨史에 就하야 多年論議 研究호
더니 今者近世史되호는 者一殆히 世에 不出호는 今日에서 其實
은 朝鮮近世史되호는 者호는 容易히 刊行호를 不得호 今日에서 此
好著述이 有하야 其刊行을 待하야 快哉를 覺호는 豈只我同好
者哉

於 嶺 南

長 風 生

自叙

余의 朝鮮에 在호에 前後十餘年 曾以微職으로 宮中에 出入호
後李朝史의 編纂을 被命호고 史料를 蒐集호 半年에 時偶日
韓의 併合이 成호에 勿忙호하야 文筆에 不遑호며 李朝史編纂의
企圖亦止라 既爲余호는 職을 去호고 野에 下호하야 朝鮮研究會에
編著에 從事호다

李朝史의 編纂은 必히 宮中의 事業이 아니라 余호는 私自로 此를
完成호 저期호고 爾來風塵匆忙호 中秃筆을 更呵호하야 此編著
을 成호 矣라 由來朝鮮의 史料朝鮮의 成著에 依호하야 無備호는
아니나 政治上의 弊風과 社會의 墮落에 依호하야 史籍의 散亡이
實로 一朝夕이 아인故로 史料蒐集의 難은 世間學者의 既爲所
知라 余의 此著와 如히 參考가 精密廣汎치 못호고 只爲任筆호